

2019회계연도 총수입 결산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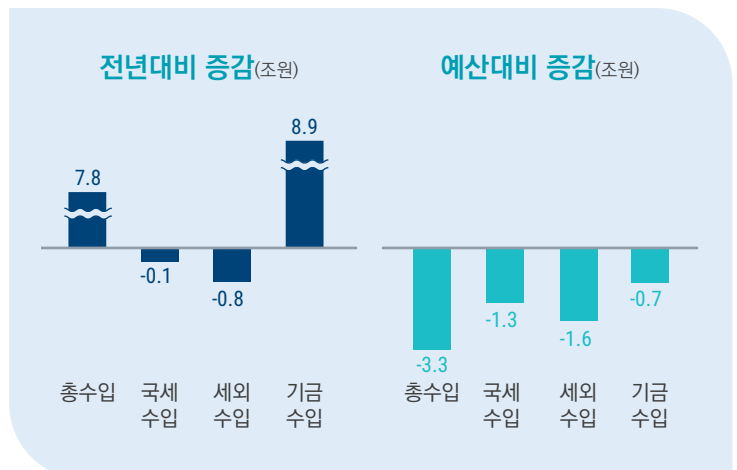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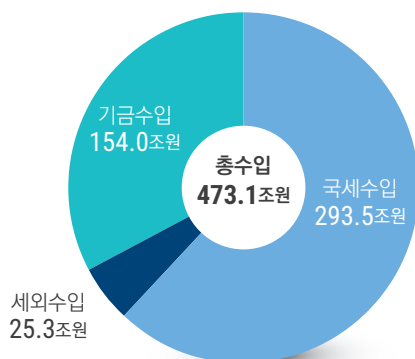
추계세제분석실
소득법인세분석과
추계세제총괄과

“ 정부가 제출한 2019회계연도 결산에 따르면, 총수입은 473.1조원으로 전년 대비 7.8조원 증가하였고, 예산을 3.3조원 하회하였다. 국세수입은 293.5조원으로 내수부진 및 기업경기 둔화 등 경기적 요인과 EITC확대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제도적 요인으로 직전 3년간의 세수호조세에서 소폭 감소세로 전환되었다. 국세외수입은 179.3조원으로 전년 대비 8.1조원(4.7%) 증가하였다.

NABO는 2019회계연도 총수입을 국세수입과 국세외수입, 8대사회보험을 분석하여 국회의 결산심사에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. ”

I. 2019회계연도 총수입 실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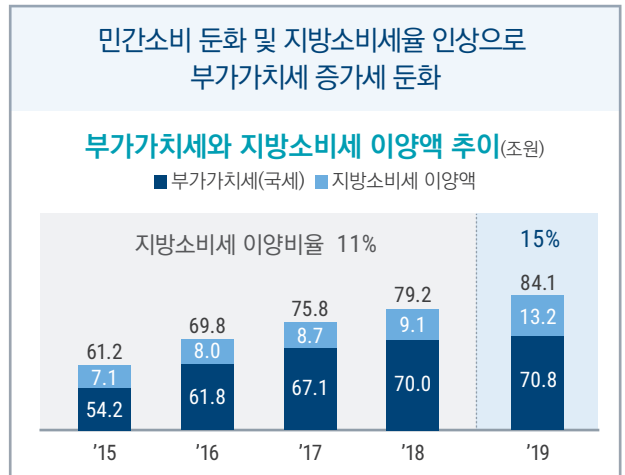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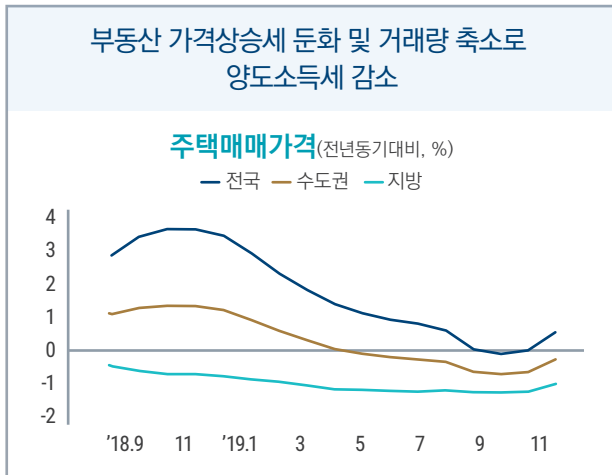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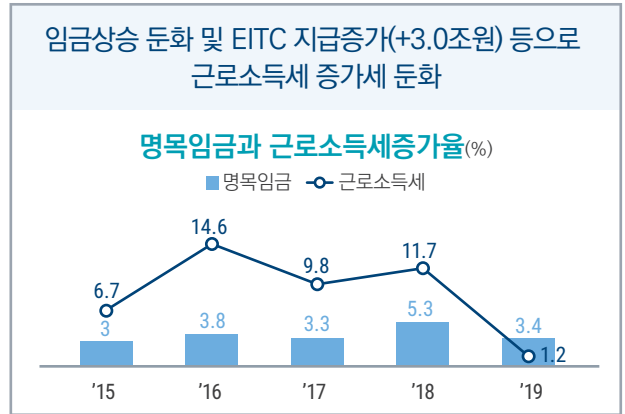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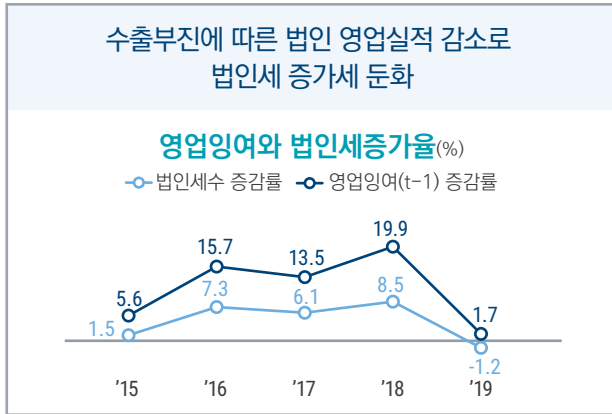
2019년 총수입은 473.1조원, 2018년 대비 7.8조원(1.7%) 증가, 예산을 3.3조원(0.7%) 하회



II. 국세수입 분석

1. 국세수입 증감 원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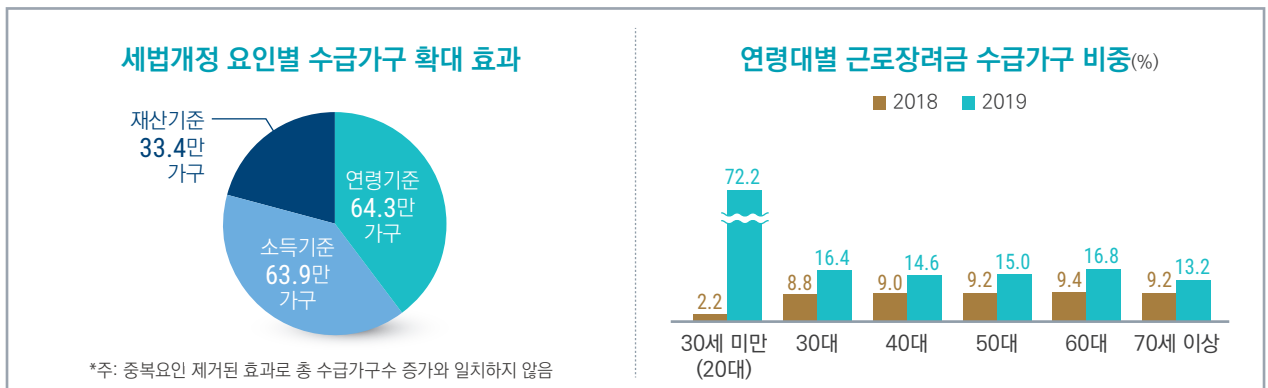
2019년은 경기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 모두 국세수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



2. 2019년 근로장려금 지급현황 분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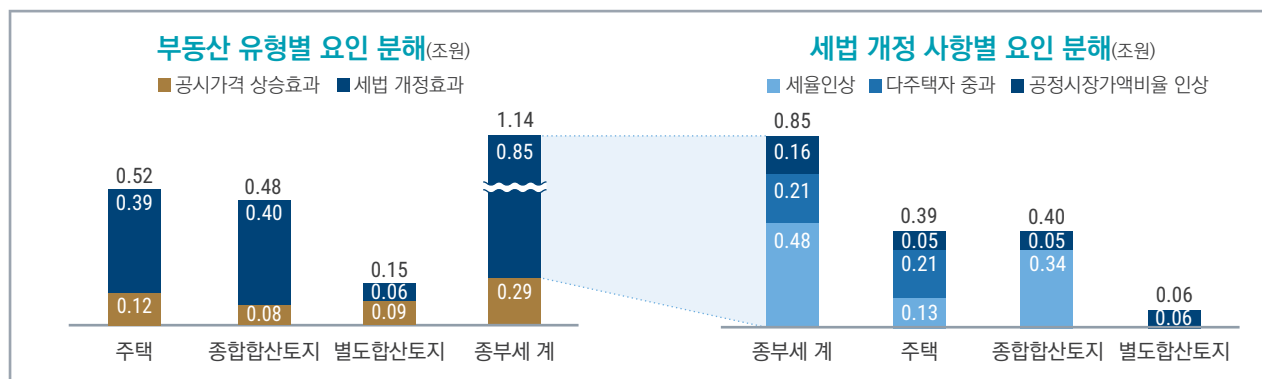
2019년 근로장려금은 388.5만가구에 4.8조원이 지급되어 전년 대비 209만 가구, 3.0조원 증가

- 제도 확대 요인 분석 결과 연령기준 폐지가 수급가구수 증가에 가장 크게 기여
- 30세 미만(20대)에서 큰폭으로 증가, 특정 연령층에 수혜가 편중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 필요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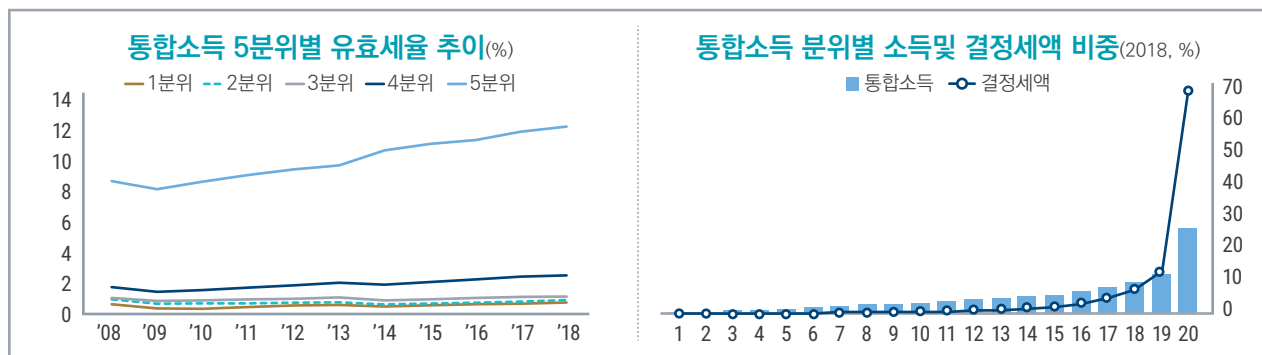
3. 2019년 종합부동산세의 요인별 세부담 영향 분석

2019년 종합부동산세 증가(1.14조원)는 세법 개정으로 0.85조원 증가한 가운데, 공시가격 상승으로 0.29조원 증가



4. 소득분위별 세부담 및 소득 집중도 분석

소득 상위구간(상위 20%)의 유효세율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
 조세구조의 누진도 강화는 소득재분배 강화에 일정부분 기여하지만, 일부계층에 대한 세부담 집중도 심화
 - 조세구조의 정상화 등을 위해 과세기반 중심축의 하향조정 등 과세기반의 점진적인 확대 고려할 필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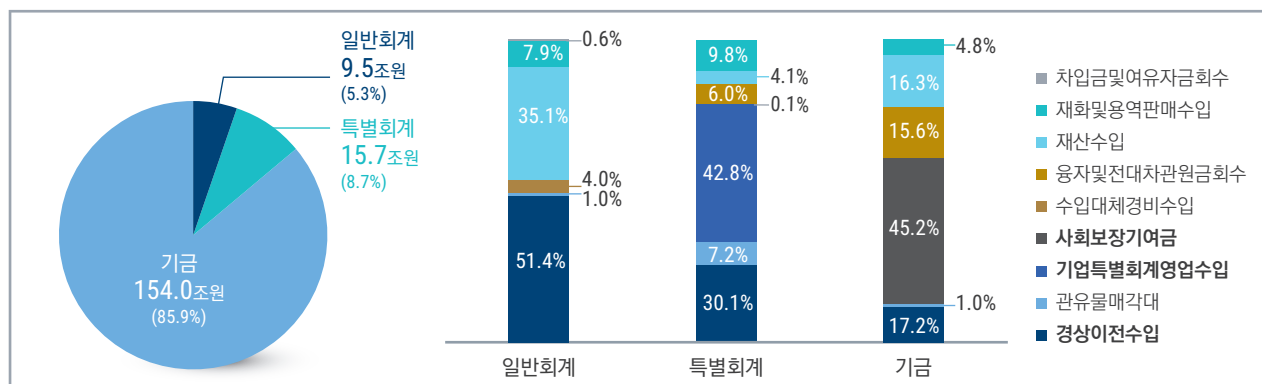


III. 국세외수입 분석

1. 국세외수입

2019년도 국세외수입은 일반회계 9.5조원(5.3%), 특별회계 15.7조원(8.7%), 기금 154.0조원(85.9%)

- 일반회계는 경상이전수입(4.9조원), 특별회계는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(6.7조원), 기금은 사회보장기여금(45.2조원)이 가장 큰 비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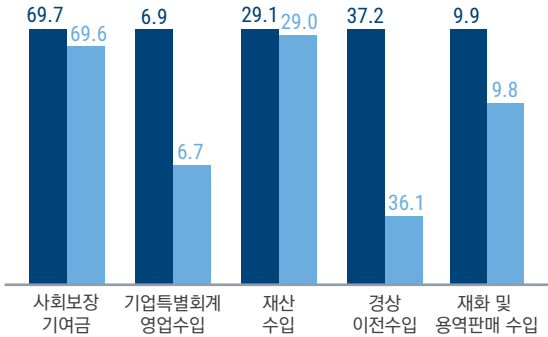


2. 국세외수입 부족수납

국세외수입 상당수 세목에서 예산대비 부족수납 현상 발생

국세외수입 세목별 예산 및 수납액(조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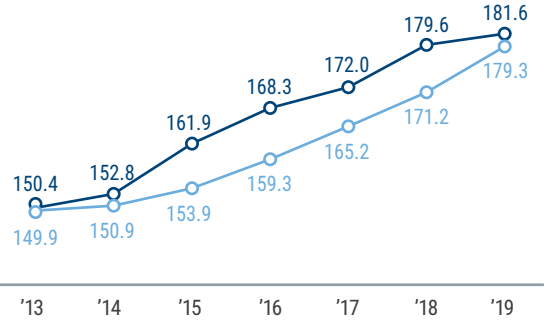
■ 예산액 ■ 수납액



국세외수입 예산대비 부족수납 현상은 2013년부터 지속

국세외수입 예산 및 결산: 2013~2019(조원)

○ 예산액 ○ 수납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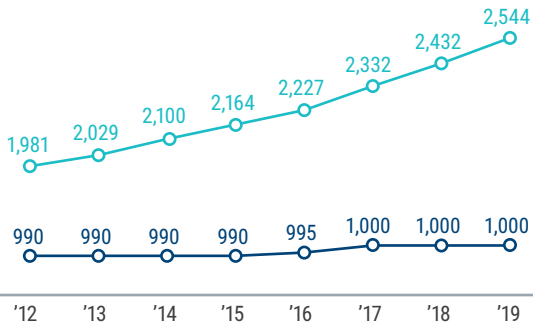


3. 8대 사회보험 분석

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이 2010년 이후 100만원 수준에서 정체

가입자별 기준소득월액(천원)

○ 사업장가입자 ○ 지역가입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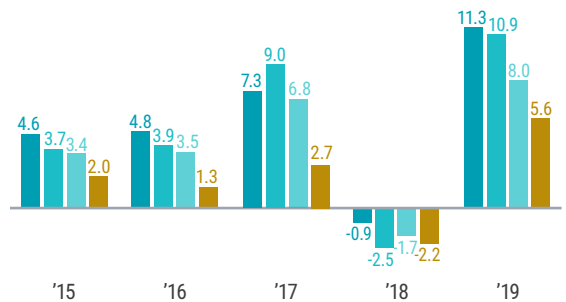


현행 기준소득월액 산정 기준에 대한 검토 필요

국민연금의 자금운용수익률 제고 방안 모색 필요

4대 공적연금 자금운용수익률(%)

■ 국민 ■ 사학 ■ 공무원 ■ 군인



2015~2019년 채권수익률이 0.5~2.4%로 특히 저조